살맛나는
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강릉시 임영로131번길 18 (KBS방송국 맞은편)
033.655.9500 ja.gursc.org

살맛나는 중앙동 소식지

Vol. 9.
2020년 11월호
발행일 2020.12.28

제 1회 감자적데이

2020 랜선 감자적, 감자전(廛), 감자전(展) 데이

강릉원주대학교 LINC+사업단과 함께한 강릉 서부시장 특화 상권 조성 사업

지난 14일 강릉원주대학교 LINC+사업단과 함께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부시장 일원의 특화상권 조성을 목표로 제1회 감자적데이가 살맛나는 중앙동의 실버라운지 예정지(구.주연의상실) 일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강릉감자가 재배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8월 8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휴가기간과 불특정다수의 집합으로 인한 코로나-19 지역 감염을 우려하여 한 차례의 연기 끝에 온라인 중심 행사로 탈바꿈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랜선 감자적데이는 감자적, 감자전(廛), 감자전(展)이라는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감자적은 감자를 활용한 요리 레시피 UCC 경진대회로 2주간의 접수 기간을 거쳐 최종 3개 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최우수작으로 감자타코, 우수작으로 강원칠리감자, 장려작으로 치즈감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상세한 레시피는 유튜브 채널 <강릉 중앙동 도시재생>에서 생생한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자전(廛, 가게)은 서부시장의 감자적 상가를 중심으로 홍보영상을 촬영하는 UCC 경진대회이나 참가자가 없어 2021년도의 더 많은 참가작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자전(展, 펼칠 전)은 14일에 진행되는 오프라인 행사로 감자적 수상자들의 시식회와 강릉원주대학교 LINC+사업단의 감자공예전, 지역감자소작농가의 직판매장, 중앙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연말기부금 모금행사, 경품추첨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축제의 현장은 <강릉 중앙동 도시재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었으며 함시 활기가 가득 찼던 현장을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근래에 느끼지 못했던 동네 축제를 느껴서 반가웠다는 목소리들에 보답하여 2021년도에는 보다 더 알찬 행사로, 중앙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라는 새로운 주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8일 제2회 감자적데이를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자요리 레시피 UCC 챌린지 수상자 시연회

강릉원주대학교 LINC+사업단 감자공예전

지역감자소작농가 직판매

생방송 중계 및 OX퀴즈

감자적데이에서 올라간 연말 자선기부금과 단합력!

살맛나는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의 일원으로 추진된 감자적데이! 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있는 행사에 중앙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빠질 수 없죠!

코로나-19와 갑자기 찾아 온 추위에 얼어붙은 몸과 마음 따뜻한 감자적과 어묵 국물로 녹여드리고, 연말 자선기부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들이 두 팔 걷어 붙이고 나왔습니다.

2시 부터 진행되는 나눔행사를 위해 오전10시부터 모여서 감자 씻고, 깎고, 감자칼이 부족하다고 단체 채팅방에 올리니 다른 회원분이 또 감자 칼을 가지고 와서 몇시간을 함께 깎고 준비하고! 각자의 상가를 운영하느라 바빠 끝까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오간 사람들 사이에는 유대감이 점점 채워졌습니다.

어느덧 협의체 회원들의 봉사 덕에 어묵은 매진되고, 감자적도 모두 배불리 나눠 먹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고려하며 시식용으로 준비한 감자빵도 사러왔다가 미판매용이라 구매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해프닝이 있을 만큼 인기가 좋았습니다.

가능할까? 했던 행사가 성황리에 종료되었을 때의 쾌감! 모두 느끼셨길 바랍니다. 모금된 기금은 연말에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 될 예정입니다.

숲속그린캠퍼스 설계용역 설명회

지난 25일 강릉커피공방이 있던 부지에 들어서는 살맛나는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숲속그린캠퍼스 리모델링 설계 용역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본 설명회를 시작으로 숲속그린캠퍼스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 및 라이프스타일 반영을 통한 중앙동 주민에게 맞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 될 예정이다.

숲속그린캠퍼스는 공공복지 서비스 사업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운영 거점이자 마을 방송국, 인문학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며 2021년 시공·준공될 예정이다.

※ 숲속그린캠퍼스 설계에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로 연락주십시오.

11월 중앙동 문화의 날 '사람 책으로 읽는 삶의 지혜'

매월 1회 주민 화합과 문화 체험의 장으로 열리는 중앙동 문화의 날이 어느새 2020년의 끝자락 11월까지 왔습니다. 이번 문화의 날은 11월 27일 늦은 7시에 "사람책"이라는 테마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부터 자신만의 경험과 감정, 지식과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그 사람의 인생 속에 기록 된 이야기들을 화자를 통하여 전해 듣는 것이 "사람책" 입니다. 책을 통하여 세상을 경험 하듯 사람 책을 통해 화자의 인생을 경험하고 참여자들 간에 교류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학창시절을 중암동에서 보냈던 중암동의 이웃이자 감릉원주대학교 박양자 명예교수님께서 사람 책으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의 해방부터 민주화, 산업혁명, 3차 혁명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 까지 대한민국의 변곡점을 직접 목격하시고 살아오신 입장으로 "삶의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를 터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배울 "학(學)"이란 한자를 파자 해보면 새끼줄을 형상화한 글자라고 합니다. 농촌에서 초가집 지붕을 얹을 때 혼자서는 할 수 없기에 온 마을이 두레 공동체가 되어 해마다 한 집씩 돌아가며 지붕을 얹었다고 합니다. 그때 경험이 없지만 힘이 있는 청년들은 아래서 새끼줄을 꼬아 위로 올려주고 경험이 있는 어른들은 지붕 위에 올라 지붕을 얹고 경험이 아주 풍부한 어르신은 모든 과정을 감독했다 합니다. 처음엔 아무 것도 몰랐지만 새끼줄 꼬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붕을 얹고 모든 과정을 능수능란하게 지도할 수 있을 때까지 배워가는 것, 이것이 배울 "학"자에 담긴 의미라고 합니다. 익힐 "습(習)"자는 새의 날개를 형상화한 글자 아래 지금은 흰 백(白)을 쓰지만 원래는 일백 백(百)자를 썼다고 합니다. 새가 날기 위해서는 백 번("많다"라는 의미)의 날갯짓을 해야 하는데 날갯짓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새 하늘 높이까지 올라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세상을 보게 됩니다. 학습. 배우고 익히는 것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의 길을 꾸준히 걷다 보면 어느 새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창조"이고 "지식"이 "지혜"가 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숲에서 나무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는 것은 지식이고 숲 전체를 아울러 보는 것은 지혜라고 빗댈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이 불확실 하다 라는 것." 이라고 이야기 하는 요즘 눈 앞의 것만 보고 달리다 보면 미궁에 빠져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삶의 지혜를 통해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내일이, 중앙동 도시재생의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모두의 지식과 노력, 지혜가 모인다면 보다 살맛나는, 살고 싶은 중앙동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람 책 프로그램은 2021년에도 꾸준히 진행하여 중앙동의 어르신, 어머니, 아버지, 이웃집 학생 등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교류하고 공감하고 그들 삶 속에 녹아 있는 값진 경험들을 발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람 책에 관심 있는 분! 사람 책이 되어 나눠주실 분! 모두에게 열려있는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단합된 마음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

- 상인학교 2기 청주 중앙동 구도심 쇠퇴상권 활성화지역 사례 견학 -

11월 11일 상인학교 2기의 구도심 쇠퇴상권 활성화지역인 청주로 사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견학 장소는 청주 중앙동으로 한때 교통의 중심지 였지만 청주역 이전 후 새롭게 조성된 신도시로, 시민과 상인들이 빠져나가면서 쇠퇴했지만 현재는 주민주도로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활기찬 모습을 되찾는데 성공했습니다.

주민협의체를 스스로 만들어 차 없는 거리를 도입하고, 중앙극장이 있던 자리에 광장을 만들어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통해서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어하는 거리를 만들며 상권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됐습니다.

이번 사례견학을 통해 수강생분들은 "리더의 중요성과 함께 도시재생을 하는 사람들의 단합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잘 될 수 있다" 등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강릉 중앙동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11월의 인문학 배움터

멋진 실버라이프★ 어르신 자기관리 특강
시니어 이미지메이킹 * 천연화장품 만들기

액티브 시니어 (Active senior)
건강하고 적극적인 은퇴 생활을 하는 "활동적인 장년"

어르신이라고 하면 소극적이고 사회와 단절된 이미지를 흔히 떠올리지만 요즘 60대는 청년이고 70대는 한창이라고 할 만큼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즐기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총 2차로 진행된 9강은 중암동 60대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나이를 잊게 만드는 이미지 메이킹 특강과 피부관리를 위한 천연화장품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델 처럼 포즈도 잡아보고 손수 만든 천연 화장품으로 피부관리도 하고, 도시재생의 주체 그리고 적극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즐겁게 배우고 노력하는 우리 어르신들 앞으로도 꽃 길만 걷길 바래요~*

요즘 유행, 비즈 공예 마스크 스트랩 만들기

코로나 19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덮치면서 마스크는 우리 생활에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꼭 착용을 해야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어 식탁 위에 뒀다가 다시 쓰는 등 보관을 잘못하면 전염의 위험을 되려 높인다고 해요. 그때 꼭 필요한 것이 마스크 스트랩 입니다. 답례품으로도 많이 나눠주지만 칙칙하고 개성 없는 스트랩은 No! 반짝반짝 나만의 개성이 빛나는 비즈공예 마스크 스트랩 만들기를 인문학배움터 10강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어머니들 뿐 아니라 아버지들도 대거 참여하셔서 매듭 공예로 마스크 스트랩을 손수 만들어 가셨는데요. 마음이 담긴 선물로 나를 위한 특별한 아이템으로 한번 도전 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주민 레시피 공유 3차 '유럽의 겨울 음료 뱅쇼'

뱅쇼(Vin chaud)란?

프랑스어로 뱅(Vin)-와인, 쇼(chaud)-따듯한 이란 뜻으로 레드와인에 과일과 시나몬, 팔각, 정향 등을 넣어 따듯하게 데워먹는 유럽의 겨울 음료로 입니다. 끓이면서 알코올이 날아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셔도 괜찮구요. 감기 예방과 추위 극복에 좋아서 유럽에선 포장마차에서도 뱅쇼를 판답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어묵 국물이 있다면 유럽엔 뱅쇼가 있는 느낌?!

이웃들의 레시피를 발굴하고 공유하며 공동체의 정을 회복하는 주민레시피 공유 세번째 시간에는 민지홍 주민활동가님께서 겨울 맞이 뱅쇼 레시피를 선보여 주셨습니다.

따끈한 뱅쇼 레시피가 궁금하다면 하단의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찰칵! 찍어 주세요~

릴레이! 중앙동 주민 인터뷰

- 일곱 번째 주자 : 한국의 전통과자 한과에 현대의 감각을 더해 오늘을 이어가는 <강릉정순자한과, 차향기> 사장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궁금해요 1. 본인과 강릉정순자한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릉정순자한과와 한과 카페 차향기를 운영하는 김옥남입니다.

30여년 전 용강동에서 지낼 때, 어머니께서 가족과 함께 먹으려고 만드신 과줄 한 박스가 이웃의 집안 행사에 쓰이면서 입소문으로 시작된 강릉정순자한과를 2014년 어머니 뒤를 이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과를 시내권에서 도보로도 찾을 수 있도록 임영로164번길로 이전하였고, 전통 한과가 현대에도 잊혀지지 않고 사랑받도록 여기저기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트랜드를 교류 하고 공부 중입니다.

궁금해요 2. 중앙동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으신가요?

사람으로 북적이며 도란도란 말소리가 들리는! 활기가 도는! 중앙동으로 바뀌면 좋겠어요. 주차장이나 거리 곳곳에 홍대거리처럼 작게나마 게릴라 공연이 열리면 거주자도 음악을 향유하고, 관광객에게도 볼거리가 주어져 곳곳에 사람의 발걸음이 닿으면 마을이 재생되지 않을까요?

궁금해요 3. 마지막으로 이 소식지를 볼 중앙동 식구들에게 한 마디!

내가 솔선수범하면 다른 분들도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동참해서 주민의 목소리를 내어, 더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중앙동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옥남 사장님께 감사드리며, 여덟 번째 주자로 [피자 파는 집]사장님을 지목하셨습니다. 다음 호에서 꼭 찾아 뵐 수 있기를! 기대해주세요!

어르신 문화교실 2기 '나의 인생 앨범'

공주처럼 아름답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무대 위의 음악가, 멋지고 폼나게... 자식들의 꿈을 위해 거름이 되어야 했던 아버지, 어머니의 인생에도 아름답게 빛나는 꿈들이 있었습니다. 추억 속에 묻어둔 나의 꿈과 인생을 찾아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한번 멋지게 펼쳐보는 "나의 인생 앨범 만들기"

처음엔 나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 조차 부끄러웠지만 사각사각 써내려 간 글자마다 청년 때의 꿈이 피어 납니다. 쑥스럽지만 이야기 해보는 어르신 문화교실 2기 수강생들의 이야기

12월 19일 개봉박두

어르신 마을학교 건강교실
기나긴 여정의 끝, 그리고 새로운 희망☆

9월 1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1월 26일까지 신나게 달려 온 어르신 건강교실 1기가 마지막 수업을 마쳤습니다. 기초체력 단련부터 인지능력 증진까지 육체와 정신의 건강 관리를 위해 매주 빠짐없이 교육에 참여하신 6분의 열정은 이미 젊은이를 뛰어 넘을 정도입니다. 하하 호호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교육 시간마다 함께하는 센터의 식구들도 어르신들 덕에 즐겁고 활력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으로 진행된 "마을 만들기 " 프로그램에서 우리 동네에 길도 그리고 꽃도 피우고 예쁘게 꾸미기도 하면서 어르신들이 중앙동에 쏟는 애정을 여기서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비록 2020년은 저물어 가지만 다가오는 2021년 지금까지 해오신 것 처럼 더욱 멋지게 중앙동의 어른으로 도시재생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르신 마을학교 !
어르신 건강교실 !
아자아자 파이팅 !!!

중앙동에 이런 곳이?

용도
카페, 가죽 공예 체험
원데이 클래스, 주문제작 등

주소
강릉시 임영로 163번길 2

중앙동에 이런 곳이? 아홉 번째 장소는 가죽 공예 체험과 원데이 클래스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커피와 다양한 베이커리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카페 <카페모카커피 엔 가죽>입니다.

서부시장 2층에 마련했던 작업실을 시작으로 중앙동의 인연은 작년 6월에 오픈한 용강서부시장 인근의 현재 매장까지 이어졌습니다.

현재 카페모카커피 엔 가죽은 요즘 인기있는 '크로플(크로와상 반죽으로 만든 와플)'과 다양한 와플류 (누텔라, 로터스쿠키앤크림, 땅콩크림) 등으로 구성된 디저트 메뉴가 있습니다.

가죽 공예는 염색, 각인을 통한 컵 받침이나 동전 지갑을 체험 형식으로 간단히 만들 수 있으며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서 나만의 가죽 키 링, 카드 지갑, 핸드폰 지갑, 스마트폰 가방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문제작이 가능하다고 하니 필요한 물품은 전화 문의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카페모카커피엔가죽>은 매일 10:30~ 21:00까지 열려있으며, 일요일은 휴무 또는 원데이 클래스(14시~ 18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트로감성 #개성에맞춘DIY #가죽만들기체험 #강릉여류작가협회

문의전화 033.646.6786

우리 중앙동, 내가 직접 가꾼다! 스스로하기 마을학교 골목환경개선 프로젝트

도시재생마을학교 1기 수료생 일곱 명이 모여 운영하는 '스스로하기 마을학교', 중앙동의 불편한점과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는 프로젝트 동아리입니다.

1단계.사전 회의 및 장소 선정

평소 지역 주민들이 다니며 눈살을 찌푸리던 공간을 직접 다니면서 노후화된 담장이나 움푹 파인 공간을 확인하고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2단계.에코탄을 활용한 테스터

에코탄을 활용한 식생 부착 시험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에서 진행했고, 주민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3단계.빈 나무 전봇대 재생

강릉 야행 테마길에 세덤을 우선 제작하여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아름다운 골목길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꾸며봤습니다.

4단계.버려진 골목 담장 가꾸기

초록빛의 식물을 가꾸어 밝고 쾌적한 중앙동 골목이 될 수 있도록 주민분들께서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주민이 직접 꾸민 골목 골목은 깨끗하게 자연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중앙동에서 이어가는 99년의 역사

지난 5일(목) 저녁7시 중앙동살맛터에서 지역홍보가양성교육인 주민피셜의 일환으로 '임당 성당'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임당성당은 종교를 넘어 '등록문화재 제457호'로 지정된 중앙동의 중요한 역사문화재이자 카톨릭 신도 사이에서는 성지순례 방문지에 포함된 곳입니다.

본 특강은 지금의 임당성당으로 자리하기까지 이어 온 역사와 가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1시간과 임당성당 및 강릉카톨릭역사박물관을 방문하는 1시간으로 구성되었으며, 열 여섯분이 참가하셨습니다.

"한 번 들어가보고 싶었으나 종교의 차이로 선뜻 가보지 못했던 곳인데 이번 기회에 가볼 수 있게 되 너무 좋았다", "대도호부관아와 같은 백년의 역사적 장소가 중앙동에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겠다"며 이번 특강의 후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해당 특강은 센터 자체에서 진행된 것이 아닌 도시재생마을학교 2기 수강생이자 임당성당의 문화해설사이신 김일환 선생님의 재능기부와 코로나-19의 여파로 닫았던 강릉카톨릭역사박물관을 선뜻 열어주신 임당성당 관계자 분들 덕분에 진행되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내년 12월에 100주기를 맞이하는 임당성당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중앙동이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중앙동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진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는 중앙동 새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지역 단체 구성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25~28일 3일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새마을부녀회, 동주민센터, 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 주민들이 동참하여 위생과 청결을 꼼꼼하게 갖추어 안전하게 김장을 담았습니다.

행사 당일 유난히 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맡은 구역에서 고춧가루에 옷이 범벅이 되어가면서 갖은 정성으로 담은 김장인 만큼 우리 이웃들이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김장으로 마련된 115박스는 각 통장 및 동 직원들을 통해 중앙동 지역 내 홀몸어르신, 취약계층, 경로당 등에 골고루 나눠질 예정입니다.

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새식구

LH인턴 권대영

안녕하세요!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로 파견된 LH인턴 권대영 입니다. 16년 청년창업으로 도시재생을 처음 접할 때 '나부터' 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결코 나만 좋다고 이뤄지는 것도 아니며,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는 걸 모두가 떠난 뒤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발판 삼아 중앙동 모든 주민분들과 소통하며 지혜롭게 풀어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28일부터 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함께하게 된 LH인턴 박수이 입니다.

도시재생에 있어서 연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공간과 또 다른 공간의 연결도 중요하지만 사람 간의 연결, 단체 간의 연결 단체와 사람 간의 연결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마을에 대한 다양한 의견·마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살맛나는 중앙동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LH인턴 박수이

중앙동 소식지 배부처

1. 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임영로 131번길 18, 강릉KBS 인근)
2. 중앙동주민센터 (토성로 163)
3.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서부시장 2층 57호)
4. 강릉야행북카페 (서부시장 1층)
5. 지앤지오 말글터 (문화의길 9)
6. 앤 베이커리 (임영로 144,선거관리위원회 맞은편)
7. 차향기 (임영로164번길 12)

8. 중앙동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홈페이지

9. 중앙동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블로그

살맛나는 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